

한국화재보험협회, “풍수재해대책 세미나” 개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6월 29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협회 1층 대강당에서 자연재해대책활동의 일환으로 학계 정부 관련기관, 손해보험사, 유관기관 및 풍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사업장의 관리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풍수재해대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 조원철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충북대 이승수 교수의 ‘강풍위험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 박사의 ‘21세기 여건변화에 따른 호우정책 및 기술개발’,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의 ‘풍수해 보험법 및 제도의 운용’, ▲한국화재보험협회 김인태 박사의 ‘사업장의 풍수재해 위험분석 및 대책’에 관한 주제발표를 진행되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소방방재청 방기성 국장, 서울시 이종상 국장, 용인대학교



김태환 교수,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김용달 부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풍수재해 대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풍수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 관련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30년 이상 축적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기술력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태풍, 해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업장의 위험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

방재시험연구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연구발표회 개최

방재시험연구원은 6월 16일(목) 오후2시 중소·벤처기업 및 정부기관, 방재기관 순해보험업계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여주군 소재의 연구원 강당에서 2004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회에서는 8개 과제 중 청정소화약제를 이용한 수·변전 설비용 자동소화장치개발 등 4개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발표에 앞서 중소기업청 산하협력과 유지석 과장이 '중소기업기술지원 정책방향' 을, 지상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성규변리사가 '중소기업을위한 특허관리 가이드' 를 각각 소개하였다.

산·학·연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전문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자율적인 공동기술개발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매년정부(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재시험연구원은 2001년부터 매년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힘써왔다.

